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찬양과경배 Songs of Praise

기도 Prayer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고후 1:12-24

말씀선포 Sermon 순박함과 진실함

*찬양 Praise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다함께

다함께

김종대

다함께

다함께

유형선

다함께

유형선

주일대표기도

5월 14일(가정주일) 5월 21일
김주연 전주은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아침묵상 (화-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제가 좋아하는 쇠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사도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긍정적 사고나 승리주의를 설명하는게 아닙니다. 그 말씀의 전제는 어떤 상황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말씀이 깔려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신앙이란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내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어떤 이는 눈이 온다고 불평하고, 비가 온다고 불평하며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눈이 오지 않은 적이 없고, 비가 오지 않은 적이 없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더이상 그러한 불편한 환경에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습니다. 인생에서 눈이 오고 비가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숙제는 오직 나입니다.

생각없이 살면 남의 생각에 내 인생을 맞추게되고 남들 사는데로 살게 됩니다. 그것은 믿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시체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각하며 사는 인생임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내가 무얼 해야 하는 지 묻고,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 지를 날마다 물으며 가는 것입니다.

한 스승이 제자에게 물이 가득 담긴 항아리를 머리에 지고 시장 바닥을 통과해서 다시 돌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대신 물 한방울도 흘리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제자는 스승이 시키는대로 했습니다. 물 한방울 흘리지 않고 시장을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스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시장에서 무얼 들었고, 무얼 보았느냐?’

제자가 대답하길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인생을 사는 자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눈이오면 눈길을 걷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걷습니다. 상황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